

마테헤스



표어 : 너나 잘하세요

은석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 존재한다는 이
항 가지 사실에만 마음을
드립니다.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됨이
아니라 인간이 추구하는 교회
퇴기를 원하는 것을
정제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신자로서의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합니다.

소리 없이 일어나는 일(2)

신윤식

마시고
또 마셔도
마르지 않는 웅달샘 하나 있다.

흐르고
또 흘러도
끊어지지 않는 강물 하나 있다.

잊혀지고
또 잊혀져도
사라지지 않는 그리움 하나 있고

영원 속에 간직해야 하는
사람으로 태어난 고독 하나 있다.

어둠보다 빛으로 가는
내 마음의 아련한 꿈들

찾고 또 찾아도
찾을 길 없는 꽃송이 하나
살포시 날아들어 싹 틔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은석교회

교회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13-8

홈페이지 : <http://www.onlycross.net>

☎ (교회) 421-9049 (사택) 425-9049 (핸드폰) 010-5831-9049

(E-메일) sys5806@hanmail.net

발행인 신윤식 목사

발행일 2012.12.16

발행호수 제20권 50호

죽 음 앞에서 사람은 무능력할 뿐입니다. 제아무리 현대 과학과 의술이 발달했다고 하나 죽은 자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 마지막까지 인간이 뛰어 넘을 수 없는 한계입니다. 앞으로 세월의 흐름과 함께

인간의 과학과 의술은 끊임없이 발전할 것입니다. 어쩌면 수명을 지금보다 더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죽은 자를 살릴 수 없고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길 또한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인간은 무능력하고 무기력할 뿐이며 죽음을 끝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죽음이라는 자연적 현상 앞에서의 무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말씀을 벗어난 인간의 현실이 곧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죽음 앞에서 무능력하다는 것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무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은 자가 살아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말씀드린 대로 회당장 아이로가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집에 오셔서 병으로 죽어가는 자신의 딸을 고쳐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회당장 아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도중에 12년을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다가와 옷깃을 잡는 일로 인해서 여인이 병 고침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겠습니까? 제아무리 병을 고치는 능력이 큰 예수라 할지라도 이미 죽은 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일에도 인간이 도울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믿음의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됩니다.

주일오전설교
눅 8:49-56

믿기만 하라

50절에 보면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고 말씀합니다. 믿기만 하라는 것은 죽은 딸이 다시 사는 일에 있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옷 기에 손을 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능력으로 고침을 받은 것처럼 죽은 자의 구원 역시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을 뿐입니다.

요 19: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입니다. **“다 이루었다”** 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기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할 것은 없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다 이루심”** 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말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곤 합니다. 특히 목사는 이 말에 대해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인가?”** 라며 노골적으로 반발 합니다. 교인들에게 열심을 요구하고 하면 된다고 하는 비복음적인 말로 선동을 일삼으면서 교회를 위한 일꾼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해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인간이 예수님을 도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회당장의 집에 도착한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만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집은 이미 아이의 죽음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울고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죽은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절망의 상태에서 아이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처럼 죽음으로 인해 절망과 슬픔만 있는 현장에서 예수님은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것과 잠자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죽음은 이미 생명에서 단절된 상태입니다. 생명에서 떠났으며 다시는 생명으로 되돌아 올 수 없는 상태가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절망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잠자는 것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깨우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죽은 아이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아이는 분명 죽

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껏 죽은 자를 잠잔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경험과 상식과 이치에 어긋나는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이 그들 귀에는 허황되게 들렸을 것이고 그래서 비웃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죽은 아이를 자는 것으로 표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살려낼 것이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것도 가능성이 있는 말이겠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살려내지 않은 다른 죽은 자는 자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는 뜻이 됩니다.

잔다 는 말은 회당장의 딸에게만 아니라 예수님과 그의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죽음을 생물학적인 죽음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십니다. 따라서 죄 문제가 해결되면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것처럼 죽음이 없는 새로운 세계를 예수님이 이루시기 위해 오셨기에 잔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죽음이 없는 새로운 세계가 회당장의 딸처럼 몸이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죽음은 죄로 인한 심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실증해주는 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죽음은 단지 육신의 소멸이 아닌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 영원한 멸망으로부터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새로운 세계이며 이 세계야 말로 죽음이 없는 생명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비록 그 몸은 죽는다고 해도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에 속했기에 잔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생명의 사건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믿음을 뭔가 할 수 있는 힘으로 인식을 합니다. 이것이 믿음에 대한 오해이며, 이런 오해로 인해서 하면 된다 라는 말을 마치 믿음의 말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을 행함으로 생각하게 되면 회당장의 딸이 살아난 일이나 혈루증 여인이 고침을 받은 일에서 인간의

행함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혈루증 여인이 무리들을 비집고 예수님의 뒤로 다가온 열심과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낫는다고 믿었기에 병이 고침 받았다고 하면서 믿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확신을 가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회당장의 딸이 살아난 것도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아와 자기 딸을 위해 예수님께 엎드려 간구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열심히 간구하면 된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혈루증 여인이 고침을 받은 것도, 회당의 딸이 살아난 것도 모두 인간의 행함으로 인한 결과로 보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이러한 믿음을 말씀하셨을까요?

믿음은 인간의 행함을 배제합니다. 물론 믿음으로 인한 행함은 있습니다. 믿음이 신자를 주관하고 다스림으로 인해서 맺어지는 열매로서의 행함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함을 근거로 한 성취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행함을 보시고 원하는 것을 이뤄주시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고 말씀하시자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일어납니다. 영이 돌아왔다는 것은 죽은 아이의 몸에서 떠난 영혼이 다시 그 몸으로 돌아와 살아났다는 뜻이 아니라 아이가 영적인 존재가 됨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아이가 죽자 몸에서 영혼이 떠났다고 하지 않고 다만 영이 돌아왔다고 말할 뿐입니다. 따라서 아이가 죽었을 때 영이 떠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일 뿐입니다.

만약 인간에게서 영이 떠났다면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육입니다.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에 있는 것을 영이라고 하고 그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이 떠났다는 것은 실제로 인간의 몸에서 혼과 같은 것이 빠져 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된 상태로 육으로만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한다면 영이 돌아왔다는 표현은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이 곧 생명이며 이 일을 예수님이 이루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행함으로도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함을 보시고 그 뜻을 결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행함으로 인해 결정하신 뜻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심판일 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행함을 선한 것으로 간주하며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께 나아가 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의를 바라보지 않는 것임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여전히 죽음의 권세 아래 있기에 누구도 살아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며 우리의 생명이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죽은 아이가 비록 살아났다고 하지만 그것은 단지 소생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죽은 자의 소생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고나 병으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면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일인 것은 틀림없지만 적어도 기독교 신앙에서는 중요한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병 고침과 같은 사건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원 사건이 일어났음을 말해줍니다. 이 구원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났으며 따라서 우리는 죽음과 상관없는 생명의 세계에 속한 자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생명의 세계에서 우리가 할 일은 믿기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의의 행함을 믿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나”라고 반문한다면 여전히 믿음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믿음의 권능 아래 있지 않음을 뜻합니다. 믿음이 주관하고 다스리는 세계를 아직 알지 못한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울고 통곡하는 것 밖에 없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러한 절망의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일어나라고 하신 말씀의 권능이 여러분께 주어졌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생명의 영으로 인해 그 삶이 풍요로워져야 합니다. 세상의 것이 우리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충만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일 뿐입니다.

시편 저자는 1절에서 하나님을 복수하시는 분으로 말하며 시작합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은 조금은 낮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어떤 죄도 용서하시는 분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사랑도 심판도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과 심판은 전혀 다른 이질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서로 역설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질적인 서로 다른 속성을 가진 분이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인류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녀에게 국한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로 인해 확증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심판으로 말미암아 더욱 선명하고 확실히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판은 구약과 신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며 뜻입니다. 2절에서도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상상하게 됩니까? 세상은 신의 심판을 권선징악의 의미로 많이 이해합니다. 윤리를 기준으로 착한 사람은 복을 주고 악한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세상이 알고 있는 신의 속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3-7절을 보면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그들이 마구 지껄이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

주일오우설교

시 94:1-23

복수하시는
하나님

(98강 11.18일 설교)

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악인이 개가를 부르고 주의 백성이 짓밟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심판을 실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심판을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조차도 심판을 막연하게 세상 마지막 때 있을 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중 살다가 죽을 때 잘 믿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 받고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관점으로도 심판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현실을 책임지고 보장하는 것이 아닌 것 또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의 상식을 따라 전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고유한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이 곧 심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현대 교회가 주저 없이 열심히 믿으면 복 받고 믿지 않으면 벌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혼란을 가져오게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결코 그 말처럼 흘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든 믿는 자가 복 받는 것이 현실이라면 굳이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 말한 대로 우리가 접하는 현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그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세상을 우리의 생각대로 다스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심판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입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악으로 규정하는 것은 도덕과 윤리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덕과 윤리라는 기준을 해체해 버린다면 과연 무엇을 악으로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도덕과 윤리로도 드러나지 않는 악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드러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같이 된다는 것 때문입니다. 자신을 향한 자기 확대의 욕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이익을 더 크게 여기는 욕망의 표현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살고자 하는 욕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또한 상실해 버리고 자신의 힘으로 원하는 것을 취하여 더

강한 힘을 추구하는 교만으로 드러나는 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눈에 누가 악인으로 보입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목도하게 되는 악인은 수없이 많습니다. 살인을 하고 도적질을 하고 사기를 치며 자기 이익을 꾀하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여러분 자신은 예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또한 나를 위해 산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면 악인이 바로 내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수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 다름 아닌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덕과 윤리로는 도무지 성립될 수 없는 일입니다. 도덕과 윤리 안에서는 나름대로 착한 사람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면 우리의 착함은 무너지기 마련이고 우리의 속에 도사리고 있는 악의 본성이 발각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악의 본성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 역시 자신을 위해 살고자 하는 악이 그 바탕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육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는 우리의 육이 아니라 영의 문제를 위해 오셨음을 간파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도덕과 윤리로는 도무지 알 수 없고 오직 말씀에 의해서만 드러나는 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세상은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제멋대로 악과 선을 규정하며 스스로 선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하지만 말씀 안에서 바라보는 세상의 실체는 온통 악으로 가득할 뿐이고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자기 이익을 위해 살고자 하는 우리를 하나님을 어떻게 다스리실까요? 그것이 바로 징벌입니다.

10-11절을 보면 “**못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라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고 말 합니다.

신자가 자신의 악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징벌이 마땅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징벌이 마땅하다면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어떤 일도 부당한 것은 없습니다. 부당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벌은 단순한 벌의 의미가

아니라 육의 생각으로 사는 우리를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취지에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의 허무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왜 허무합니까? 온통 육의 문제에 매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육의 문제를 위해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부르며 간구합니다. 육이 헛되다는 것을 안다면 헛된 육의 문제에 매달리는 자신의 믿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아예 육의 헛됨을 간과하고 있기에 사람의 생각이 온통 허무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하심으로 헛된 육의 생각을 무너뜨리시고 영의 문제에 마음을 두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는 우리를 육에서 벗어나 영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12절의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처럼 징계가 오히려 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징계가 비록 아픔과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말씀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신자는 아픔과 고통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위로를 받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고 돕지 않으셨다면 그 영혼은 이미 영원한 죽음에 처해졌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도우신 것이 곧 징벌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악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가 신자를 의의 길로 이끌어 가는 도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을 징벌하심으로 육의 생각을 무너뜨리고 영으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도움이 없는 것입니다. 즉 내어 버려두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세상이 아무리 형통한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결국 멸망의 길을 걷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육의 생각에 붙들려 흔들리는 우리를 징벌하시면서 도우시는 여호와가 우리의 요사이시고 피할 반석이십니다.

수요일설교
렘 22:20-30

습관적인 죄

(56장 11.21일 설교)

교 회의 부패를 지적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현대 교회의 급선무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은 성경에서 어긋난 길로 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다면 그는 성경에서 벗어나 있는 현실을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현대 교회의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내 교회 문제가 아니니까 관심두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지만 현대 교회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내가 몸담은 교회의 현실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지금의 교회는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목사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개의 신자들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또 알고도 하지 않은 채 목사의 말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추종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한 말이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거의 미신 수준의 잘못된 신앙에 머무른 채 막연하게 옳은 말일 것이라는 생각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공부가 시행되고, 성경읽기를 강조하는 것을 보면 성경에 대해 열성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미 교회 성장을 위한 도구로 전락되어 필요한 구절만을 골라서 이용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고, 사람들을 교회에 붙들어 놓기 위해 성경을 이용하는 것이 현실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것으로 인한 기쁨에서는 멀어지고 말씀에 대한 영적 관심 또한 무디어 지면서 대신 교회가 시행하는 여러 가지 행사에 재미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

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랴” 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유다 백성의 잘못된 하나님께서 그들이 평안할 때 죄를 지적하시고 경고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려서부터 나타났던 습관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유다가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들이 원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교회 현실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의 세계로 이끌어 갑니다. 하지만 육의 세계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같은 말씀은 이미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대신 그들이 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짓된 말을 선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거짓된 말은 군중들의 종교적 감성을 자극합니다. 죽은 후에 천국을 가고 싶어 하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합니다. 세상에 몸담고 있을 때는 성공하고 부자 되고 싶어 하니까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복 받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청종하기를 싫어하는 지금 세상의 습관이며 유다의 습관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청종하기를 싫어하는 이 습관에 의해서 유다가 당할 결국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22절에서 **“네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 때에 네가 반드시 네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고 말합니다. 멸망의 소식 외에 그들에게 주어질 것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청종하지 않게 되면 말씀으로 세상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유다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볼 수 없게 되면 말씀에 비추어서 세상이 비참한 처지에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동일하게 돈 있으면 살만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돈만 있으면 세상 살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돈만 있으면 세상도 살만합니다. 모든 것을 즐기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살만한 그 시간이 얼마나 지속되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에서의 시간이 끝난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은 비참하다는 것입니

다. 재물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비참합니다. 이러한 비참한 현실에서 인간에게 유일한 희망은 구원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이 같은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이루었다고 해도 구원 밖에 있는 존재는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청종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 기쁨이 되는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말에 대해 짜증을 냅니다. 영혼의 구원도 좋고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도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분이려면 왜 우리의 삶이 형통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습니까? 잘못 믿어서 인니까? 이것이 성경을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하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23-25절을 보시면 유다에 대한 멸망을 경고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고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며 자신의 죄는 간과한 채 오로지 세상에서의 형통과 복을 추구하면서 우상을 섬겼던 유다의 습관이 결국 멸망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입니다. 영원한 사망이라는 현실에서 세상에서의 성공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공했다고 해서 평생을 행복감에 젖어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성공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에서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철저히 무너뜨리고 죄를 보게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죄를 보게 되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깨달으며 예수님을 믿는 것에 인생의 의미를 두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인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마음을 예수님에게로 돌이키게 합니다. 예수님에게로 마음이 돌이킴을 받게 되면 사도 바울처럼 세상의 것들은 배설물이라는 말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습관은 말씀을 청종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간섭하시며 옛 습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청종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살게 된 것을 복으로 여기며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청종하십시오. 말씀으로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아 가시고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오전예배 ▣

11시 / 인도 신윤식 목사

묵상기도 : 다 함 께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15(55)장
교 독 : 79(요15장)
기 도 : 조규현 장로
찬 송 : 446(500)장
성 경 : 눅 8:49-56
말 씬 : 믿기만 하라(39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540(219)장
교회소식 : 이영민 장로
찬 송 : 3장
축 도 : 설 교 자

▣ 오후예배 ▣

2시 2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364(482)장
기 도 : 박영선 집사
찬 송 : 440(497)장
성 경 : 시 97:1-12
말 씬 : 선포되는 의(101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255(187)장
주기도문 : 다 함 께

▣ 수요일예배 ▣

7시 3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예레미야 강해(60강)

▣ 교회소식 ▣

1. 2013년도 달력이 제작되었습니다. 한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2. 2013년부터는 개정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사용합니다.
3. 총회신학원 건축헌금은 30만원입니다.
4. 오후 5:30분에 서창남, 이은혜 성도님 가정에서 예배 있습니다. (신매동 태성맨션 237동 1309호)

다음주 기도

오전 - 이성희 장로 오후 - 이애림 집사

이단 ⑨

인간의 종교심을 자극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수단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표적과 기사다. 표적과 기사란 물론 기적적인 사건을 가리킨다. 기적적인 사건이 곧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이고, 하나님은 또 그러한 표적과 기사로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자들에게 보여 주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사도 바울의 말(고전 4:20)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믿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능력, 즉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고 가르치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다. 물론 사도 바울이 말한 능력은 사람들이 보고자 하는 표적과 기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능력을 오직 그런 의미로만 들어 왔기에 진정한 능력과 진정한 기적과 표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함으로써 이단이 종교심을 자극하고 있음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표적을 구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 창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하시고 또 가나안 땅을 주어 소유로 삼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자 아브라함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을 알리니까' 라고 물은 일이 있다. 그때 하나님은 제물을 가져오게 하시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보이었다.

또 사사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하셨을 때 기드온은 자신과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보여 달라고 하고, 하나님은 바위에서 불이 나와 기드온이 바위 위에 놓은 고기와 무교병을 사른 것을 보이신다. 그리고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을 때 기드온은 또 다시 표징을 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의 요구대로 한번은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주변 땅은 마른일과, 또 한 번은 주변 땅은 이슬이 있고 양털은 마른일을 보이신 것이다.

이 외에도 이스라엘에는 출애굽의 홍해 사건과 함께 반석에서 물이 나온 일, 광야에서의 만나와 메추라기, 해가 멈춘 일등 놀라운 표적들의 경험 있다. 그래서인지 유대인들은 늘 표적을 구했고 예수님에게도 하늘로서 온 표적을 보이라는 요구를 한 것이다. 예수가 메시아라면 메시아로서의 표적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을 하고 싶어 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적은 요나의 표적, 즉 십자가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참된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 밖에 없다는 뜻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고 구원에 이르게 한 기적이며 능력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 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표적과 기사로 등장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면 인간의 종교심을 자극하는 표적과 기사로 인한 미혹을 방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늘 십자가로 만족하지 못한다. 보이지 않는 것이고 경험되지 않는 것이기에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되 만족을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교인들의 만족을 채워주기 위해 십자가 외에 믿음에 대한 다른 표적과 증거를 말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병 고침, 만사행통, 세상에서의 성공 등인 것이다. 이런 말을 들으며 그것을 성경의 말로 착각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수단으로 한 이단의 말을 분별할 수 없는 것은 자극히 당연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